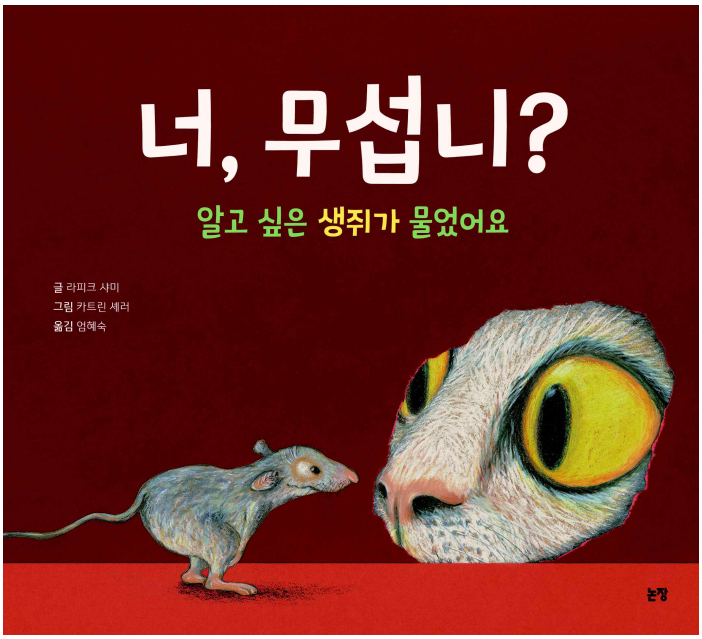
그림책은 내 친구 044

너, 무섭니? _ 알고 싶은 생쥐가 물었어요

그림책으로 통섭교육하기



"무서움, 그게 어디 있어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어요.
단지 느낄 뿐이에요!

중요한 감정인 '무서움'의
양면성을 느끼면서 정서의 폭을 넓히고,
자신과 다른 이의 감정을 의식하며
감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 **교과연계**

누리과정 전 과정

1학년 2학기 국어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2학년 1학기 국어 8. 마음을 짐작해요.

라피크 샤미 글 | 카트린 셰러 그림
엄혜숙 옮김

활동 목표

1. 이야기를 파악하며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2. '두려움'이란 감정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3. 안정감과 은신처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믿음, 친밀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는다.

◉ 읽기 전 활동

1. 표지를 보며 책 내용을 짐작해요.

■ 제목와 표지 그림을 보며
어떤 내용일지 말해 보세요.

■ 생쥐들은 왜 꼭 끌어안고 있을까요?

■ 생쥐의 몸짓을 보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생쥐'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3. 여러분은 어떨 때 무서운가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고 왜 그런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4. 무서울 때 어떻게 하면 무서움이 사라지는지 떠올려 보고 친구와도 이야기해 보세요.

5. 다음은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를 골라 짧은 글 쓰기를 해 보아요.

궁금하다 / 기쁘다 / 놀라다 / 슬프다 / 두렵다 / 무섭다

속상하다 / 불쌍하다 / 울적하다 / 짜증 나다

불안하다 / 편안하다 / 화나다 / 신기하다 / 뿌듯하다 샘

나다 / 지루하다 / 행복하다 / 홀가분하다

◉ 내용 이해하기

1. 미나의 엄마가 집 밖에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밖에 나간 이유는~

2. 무서움이 무엇이냐는 생쥐의 질문에 동물들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

㉡

㉢

㉣

① 누군가 날 무서워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

② 내가 왜 무섭겠니? 난 바늘이 1만 6천 개나 있는데.

③ 난 안 무서워. 난 좋은 냄새를 풍기지.

④ 나는 무서움을 280가지나 알고 있단다.

3. 다음 의성어·의태어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정확한 뜻을 모르면 사전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꽉 / 우적우적헐레벌떡 / 쿵쾅쿵쾅

- 하마는 대답하면서도 (　　) 풀을 먹었어요.
- 갑자기 엄마가 (　　) 쥐구멍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 누군가 목을 (　　) 누르는 거 같았어요.
- 달아나고 싶어서, 심장이 (　　) 뛰었어요.

(답: 1.먹이를 구하러 2. ㉠-④ ㉡-③ ㉢-① ㉣-② 3.우적우적, 헐레벌떡, 꽉, 쿵쾅쿵쾅)

4.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요? 어떤 단어인지 쓰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세요.

몰랐던 단어	뜻
예) 소름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도톨도톨하게 돋는 것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동물들은 무서움을 각자 다르게 설명했어요.
각 동물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세요.

- 무서움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보여 줄 수는 없단다.
- 정신이 나가면 날 무서워하지 않거든.
- 무섬은 다른 무서움을 만들 거야.
- 무서우면 몸이 차가워지고 소름이 돋는다고 들었어.

6. 아래 내용을 읽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사자가 으르렁거렸지만 미나는 귀에 앞발을 댔을 뿐이에요.
② 고슴도치는 지렁이를 먹느라 한동안 미나를 잊었어요.
③ 귀뚜라미는 풀 줄기 위에 앉아 미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④ 미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매들은 미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답: 5.귀뚜라미-무섬은 다른 무서움을 만들 거야. 엄마-무서움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보여 줄 수는 없단다.
코끼리-무서우면 몸이 차가워지고 소름이 돋는다고 들었어. 사자-정신이 나가면 날 무서워하지 않거든. 6.④)

7. 미나에게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8. 무서움을 느낄 때 미나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책 속에서 찾아 써 보세요.

* 앞발 -
* 배 -
* 가슴 -
* 숨 쉬기 -
* 목 -
* 심장 -

9. 나만의 단어로 무서움이 사라지는 과정을 표현해 보아요.
다음 문장의 진한 글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미나는 차츰 **따스함**을 느꼈어요.
그러자 목과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

미나는 차츰 (　　)을 느꼈어요.
그러자 목과 가슴에 있던
(　　)이 사라졌어요.

※ 생각이 바로 안 나면 각 단어와 비슷한 말을 먼저 찾아보세요.

'따스함'과 비슷한 말	'답답함'과 비슷한 말
예) 포근함	예) 숨 막힘

10. 미나가 가족들 사이에서 잠드는 마지막 장면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답: 7.뱀 8.앞발에 차가운 기운을 느꼈지요. 차가운 기운이 배에 느껴졌어요.
가슴이 콱 막히는 걸 느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목을 꽉 누르는 거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 생각 넓히기

◈ 의사소통 영역

* 책을 읽은 소감을 자유롭게 말해 보아요.

* 무서움을 느낄 때 나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 말을 어떻게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활동 도움】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기분 좋아.”, “지루해.”, “재미있어.”처럼요.
그런데 이 말들 중에는 한번 생긴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절대 못 해.”, “자신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말은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어요.
자신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을 해 준다면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미나에게 편지를 써 보아요. 무서움에 벌벌 떠는 미나를 위로해도 좋고,
  책을 읽으며 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 봐도 돼요.

* 집으로 돌아온 미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상 인터뷰를 해 보세요.
  미나가 어떻게 대답할지도 함께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활동 도움】

인터뷰를 할 때는 질문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은 미나에게 무엇이 궁금한가요?
무서움을 깨달은 뒤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엄마가 집을 비울 때는 자매들과 무얼 하는지 등
등질문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미나의 입장에서 인터뷰 답변도 써 보세요.

* 이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

* 친구와 함께 책을 낭독해요.
  여러 명이서 각자 배역을 맡아 자기 부분을 크고 실감나게 읽어 보세요.

【활동 도움】

먼저 배역을 정해 볼까요? 이야기를 진행하는 해설자와 여러 동물, 엄마, 미나, 사자, 하마,
스컹크,고슴도치, 코끼리, 개, 귀뚜라미, 거북이, 뱀이 나오네요. 그 배역은 어떤 성격인지,
말투는 어떤지를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 있게 책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 신체 운동·건강 영역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작품 내용과 관련된 술래잡기, 보물찾기, 비언어적 소통하기 등으로 구성된 활동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역할을 고루 배분해 주세요.

* 한 모둠은 생쥐, 한 모둠은 고양이가 되어 잡기 놀이를 해요.
  모둠을 바꿔 번갈아 술래가 되어 보세요.

* 찍찍, 구석에 숨은 생쥐를 보물찾기하듯 찾아보세요.
  모둠을 나눠 먼저, 한 모둠이 미나를 그린 종이를 접어서 잘 숨기고 다른 모둠이 찾아요.
  한 차례 놀이가 끝나면 번갈아 생쥐를 찾아보세요.

* 모둠별로 동작 맞히기 게임을 해 보아요.
  스케치북에 책 속 동물의 이름을 적고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동작으로 표현하면
  다른 모둠원이 어떤 동물인지 맞춰요. 이때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고루 문제를 내요.

* 모둠별로 표정 맞히기 놀이를 해요.
  한 사람이 특정한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맞히는 놀이예요. 고루 돌아가면서 표정으로 문제를 내 보아요.

◈ 예술 경험 영역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 익숙한 아이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두고 친구와 비교하며 우위를 매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며
저마다의 다양하고 특별한 예술성을 듬뿍 칭찬해 주세요.

* 책 속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누어요.

* 무서웠던 상황을 떠올리고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 나의 무서움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일까요?
  왜 그 색을 골랐는지도 말해 보아요.

* 무서울 때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한번 불러 보아요.

◈ 사회 관계 영역

*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미나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활동 도움】

책장을 넘기며 각 페이지마다 미나의 감정을 한 단어로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호기심, 무서움, 안정감 등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단어를 먼저 정리해 보거나. 일기장을 뒤적이며 나는 평소에 기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짚어 보면 미나의 감정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 나는 어떨 때 위의 감정을 느꼈는지 떠올려 보아요.

* 우리는 무서움을 얼른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움은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럴지 생각해 보세요.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무서움을 물리쳐야 하는 감정, 이겨 내야 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 실존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일을 배운 셈"이라며 불안도 꼭 필요한 감정임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은 하나의 방어기제(감정적 상처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이자, 인간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예요. 인류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위험을 인식하고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지요. 만약 인간이 공포를 모르는 존재였다면 자연과 동물의 위협에 진즉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당한 무서움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풍이나 운동회 등에서 다칠까 봐 무서워하는 아이는 조심하거나 미리 구급약을 챙길 수도 있겠지요. 무서움의 긍정적 기능을 생각하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미나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 미나의 가족 구성원은 누구누구인지 적어 보아요.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이 활동의 목표는 '아빠+엄마+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는 다른 여러 가족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이웃들은 어떤 보금자리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자연스레 일깨우게 됩니다.

* 나와는 다른 모습의 가족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워요.

◈ 자연 탐구 영역

* 가까운 동물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책 속 동물들의 습성을 알아봐요.

【활동 도움】

습성은 같은 생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이란 의미예요. 조금 어렵나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하루에 세 끼 밥을 먹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것처럼 동물들마다 먹이, 사는 곳, 수면 시간, 무리를 이루는 방식 등이 제각각 다르지요. 동물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책 속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아요.

* 각 동물들의 특징은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동물의 본래 습성과 작품 속에서의 특징 중 닮은 부분을 적어 보세요.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사자는 무서운 게 없고, 풀을 매우 많이 먹는 식성으로 알려진 하마는 배고파서 무서울 겨를이 없는지 끊임없이 풀을 먹는 모습으로 묘사돼요. 몸을 보호하려고 노란 액체를 내뿜는 스컹크, 가시 많은 고슴도치는 각각 냄새와 가시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니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코끼리는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커서인지 강에서 몸을 씻으며 무서우면 몸이 차가워지지 않을까 궁금해해요. 냄새 잘 맡는 개는 냄새로 두려움을 알고요. 리드미컬한 울음소리를 내는 수컷 귀뚜라미는 '무섬'과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말장난을 하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특히 오래 사는 거북은 누구보다 무서움의 종류를 많이 알아요. 독이 있는 위험한 동물 뱀을 통해 미나는 비로소 무서움을 알게 되지요. 동물의 습성이 반영된 이 작품을 읽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물에 관한 지식을 접하고 작품에서 '비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게 돼요.

* 작품에 등장하지 않은 동물을 하나 떠올려 보고 그 동물은 무서움을 어떻게 설명할지 습성과 연결 지어 정리해 보세요.

◈ 영어 영역

* 책 속 동물은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찾아서 써 보세요.

【함께 활동하는 어른들께】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은 누구누구일까요?
생쥐 / 사자 / 하마 / 스컹크 / 고슴도치 / 코끼리 / 개 / 귀뚜라미 / 거북이 / 뱀 / 고양이……
양면에 각각 한글과 영어 단어를 적은 카드들을 펼쳐 놓고 단어 맞히기 놀이를 해도 좋습니다.

* 반복되는 '너 무섭니?'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배워 영어로도 대답해 보세요.

【활동 도움】

영어로 '너 무섭니?'는 'Are you afraid?'예요. 반복하며 표현을 익혀 보세요.